

# 광양 구봉산 일원 도시산림공원 조성

### 테마숲길·숲속놀이터·산림욕장 갖춰 18억 투입 이달 착공...관광명소 기대

광양시 구봉산 일원에 도시산림공원이 조성된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구봉산 전망대와 연계, 방문객이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생활권 녹색공간인 도시산림공원이 이달 말 착공된다.

이번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봉산 전망대 일원 22ha에 18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대상지인 구봉산은 호남정맥의 끝

자락인 백운산에서 남하하는 주능선과 연결된 해발 473m의 산이다. 순천, 여수, 하동, 남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광양만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다. 중마 도심권과 가까워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구봉산 정상에는 9.4m의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일출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 봉수대, 산책로, 포토존, 카페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도 하다.

그동안 광양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부지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



광양시는 구봉산 전망대와 연계해 방문객이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한다.

림에 대한 사용 협의와 전라남도 계약사업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에는 산림휴양공간, 체험과 놀이공간, 경관감상 소통공간 등 3개의 공간과 다양한 테마숲길, 숲속놀이터, 야외쉼터, 산림욕장 등이 조성된다. 경관수종 식재와 숲 가꾸기도 추진된다.

서희원 산림소득과장은 "구봉산 전망대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되는 이번 사업이 구봉산을 관광 명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광양시는 앞으로도 이용자 만족도 제고는 물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구봉산 일원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1,520억원을 투입해 '약속의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28억원을 투자해 점동마을과 구봉산 전망대를 연결하는 '점동~구봉산전망대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추진하고 있다. /광양=정경화 기자

### 주목! 이사람



**정현복** 광양 시장은 19일 오전 11시30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광양시장예인어울마당 큰잔치 기념식에 참석한다.



**박병종** 고흥 군수는 19일 오후 1시 우주홀에서 열리는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한다.



**송경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19일 고흥군청에서 열리는 고흥군 대강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회에 참석한다.



순천시 개인택시지부 지부장 송하운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남본부 사무국장 김만수 | 대진교통복지위원장 이만수 순천시 택시노동자들은 지난 17일 순천시청 앞에서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청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순천 택시노동자들 "허석 예비후보 사퇴하라"

순천시 개인택시지부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남본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청 예비후보에 대해 공개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택시지부와 택시노동조합연맹 등 50여명의 회원들은 지난 17일 순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석 후보가 자신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서 개인택시 사업자 220명과 택시노동조합 367명 총 587명이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공개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지지선언을 한 4개 노동조합 중 2개 조합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순천지역지부 소속이 아니고 367명이라는

4개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도 110여명에 불과하다"며 "금세 드러날 거짓말로 허세 무민하는 사람이 여찌 정리를 주장하고 28만 시민의 대표로 나서겠다는 것인 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택시노동자를 우롱하는 허석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며 "허위사실로 택시운전자의 명예를 짓밟고 택시운전자들 간의 분열과 싸움을 부추기는 허석 후보는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택시운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허석 후보의 예비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 곡성 환경미화원 작업 위해요인 조사

곡성군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위해요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내용은 생활폐기물을 청소차량에 옮겨 실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어깨, 허리, 손목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것으로 이뤄졌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환경미화원의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

곡성군에는 현재 25명의 환경미화원이 읍·면별 담당구역을 순회하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 가구, 매트리스 등의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곡성=한정길 기자

## 보성에서 즐기는 아트페스티벌

### 내달 31일부터 뮤지컬·연극·클래식 등 공연

보성군은 5월 31일부터 7월 5일까지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페스티벌'을 열고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 4개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기획프로그램 공모에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페스티벌'이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지원금은 3,500만원이다.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페스티벌'은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며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예술

축제를 만들어가자는 콘셉트로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 4개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은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5월 31일), 가족뮤지컬 '술술이와 고양이 슈퍼밴드' (6월 1일), 배우 사미자가 출연하는 연극 '세 여자' (6월 8일), 깊이 있는 클래식을 만날 수 있는 벨라보체 합창단의 서양 고전음악 여행 (7월 5일) 등이다.

보성군은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로 지

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티켓은 보성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art.boseong.go.kr) 또는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입장료는 R석 1만원 S석 8,000원 A석 6,000원이다.

티켓 할인 및 기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061-850-8661~7)으로 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인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선상희 기자

### 여수 거북선축제 준비 점검 해양공원서 현장 간부회의

여수시가 거북선축제와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을 앞두고 주철현 여수시장과 최중선 부시장 등 공무원 30여 명이 지난 17일 오전 해양공원을 찾아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 참여자들은 먼저 담당 과장으로 부터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현장을 둘러보며 주철현 시장은 행사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로 52회를 맞는 거북선축제는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순신광장과 해양공원 등에서 개최된다.

대표 프로그램은 통제영길놀이, 해상수군출정식, 해상빛빛페스티벌로 각각 3, 4, 5일 진행된다.

축제 개막식은 4일 오후 8시40분 해양공원에서 열린다. 둘째 날에는 소년 이순



여수시는 지난 17일 주철현 여수시장과 최중선 부시장 등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공원에서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신 선발대회,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강강술래 등이 펼쳐진다. 셋째 날 프로그램은 청소년밴드 페스티벌, 5관5포지극대 구공연, 춘향무 등이다.

여수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떠오른 거리문화공연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오는 20일 개막한다. /여수=곽재영 기자

낭만버스킹은 오는 10월 2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양공원 일원 5곳에서 진행된다.

공연은 댄스, 악기 연주, 어쿠스틱 공연, 밴드 공연, 마술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지구의 날 맞아 고흥 방문

마크 내퍼 미국대사 대리 일행 6명이 지난 17일 제48회 지구의 날 (4월22일)을 맞아 고흥 나로도 일원을 방문했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미국대사관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방문단은 첫 일정으로 나로우주센터를 방문, 우주과학기술분야 협력 및 향후 협력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등록된 나로도 봉래산에서 1시간 20여 분 산책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이번 미국 대사관 일행 방문으로 우주항공 등 첨단시설과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고흥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광기반 확충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흥 방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진종언 기자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4633-1790

### 클릭! 내고장 소식



### 강진대구중 치즈 체험 활동

강진대구중학교는 최근 화순 정형필 치즈체험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피자과 치즈 만들기 체험, 송아지 우유주기, 빵 튀기, 레일썰매타기, 화순 물영정 적벽, 공룡발자국 화석지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했다.

김원식 진로진학상담 교사는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 고흥 유아 원에 체험 활동

고흥군은 지난 17일부터 고흥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관에서 관내 26개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470여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원아들은 열대어와 수생식물을 이용한 화분어항 만들기, 시설하우스 견학 등을 실시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 여름부터는 체험활동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진종언 기자



### 순천 풍덕동 '참 좋은 이웃' 선정

순천시 풍덕동은 최근 결식어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정가득 밥상 나눔사업'에 참여한 외식업체 6개소를 '참 좋은 이웃'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제작, 부착했다.

'온정가득 밥상사업'은 관내 외식업체의 참여로 외식쿠폰이나 식사를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업체는 통편연가, 광춘원, 교촌치킨남부점, 다비다회관, 아랫장국수, 뽕촌 등 모두 6개 업소다. /순천=박경식 기자



### 신안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

신안군은 최근 지역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청소년 참여위원 21명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14기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와 권리 증진을 위해 정기회의, 문화체험, 지역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체험하고 배우면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